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말라기서 강해

## 이혼과 배교

(말라기 2:10-16)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부부가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입니다. 돈이나 권력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신앙 생활 잘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 중에는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결혼식에서 하는 결혼서약은 신성하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에서는 성례식이 세례식과 성찬식의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카톨릭에서는 일곱 가지가 있으며 그 가운데는 결혼예식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결혼을 매우 신성시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약속과 서약이 있습니다만 세상에서의 서약들은 잠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결혼 서약은 다릅니다. 결혼서약은 죽는 시간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결혼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본문은 특별히 결혼에 관하여 두 가지 무서운 죄를 지적합니다.

### 1. 혼음

“유다는 여호와와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였으니”(11절).

본문에는 예루살렘 사람이 성결을 욕되게 해서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한 사실, 다시 말해서 혼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건강하고 똑똑하고 직장이 튼튼하면 불신자도 괜찮다고 합니다. 전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지붕 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은 사탄의 종노릇을 한다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 2. 이혼

“여호와와 가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웃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16절).

마태복음 19:8에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인간이 완악하고 더러우므로 다른 여자와 사는 사람과는 이혼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7:15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의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 한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사람의 주인은 마귀여서 가정이 화평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헤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배우자의 믿음으로 인해 불신자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으니 이혼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32에서 배우자가 간음하였을 때에는 헤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러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라기서에서는 이혼하는 것을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한 편은 살고 싶은데 상대방에서 쫓아낸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 수 있는 데도 헤어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결코 덕스러운 일이 못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 때문에, 성격 차이로 못살겠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려서 취한 아내, 처음 결혼한 여인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얼마나 순결합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죄가 안방에까지 기어 들어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는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 이전의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한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는 그런 사실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입니다. 돈이나 권력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가정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한 편이 안 믿는 가정이 있다면 무엇보다 믿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의 실직이나 아내의 육신적 결함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배우자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혼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불신자와의 결혼은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결혼을 우상숭배 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를 신성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2008 사명자 대회

## 10월5일(주)-11월23일(주) 50일간

### 특별새벽기도회: 11월17일(월)-22일(토) 새벽5시

매년 교회설립 기념주일 50일전부터 시작되는 기도와 전도의 장인 2008 사명자 대회가 임박하였다.

사명자대회는 서울교회 설립 50일전부터 기도로 주님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는 대회로 말씀과 기도의 작전으로 진행된다.

대회 기간 동안 태신자 작성, 사명자 특별새벽기도회, 24시간 연속기도, 다니엘 기도-열열이 기도, 성경 암송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이어진다.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복음화 할 사명자임을 되새겨 기도와 전도에 힘쓰도록 기도한다.

#### <주제 및 찬송>

· 주제: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 10:10)

· 주제찬송: 268장(은 세상 위하여)

#### <행동강령>

1. 바르게 믿고 철저히 회개하여 백성의 위로자가 되자.
2. 신행일치의 삶을 실천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자.
3. 세계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기독교화를 실천하자.

#### <기도제목>

1.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품은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한 알의 밀알 되기를 소원합니다.
2. 우리는 교회천국화의 비전을 좇아 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세움 받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3. 우리는 문화기독교화의 비전을 기뻐하는 사명자로서 타락한 세상문화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문화로 변혁시키는 등대가 되고 구원선이 되며 나침반 되기를 소원합니다.
4. 우리는 서울교회를 세우고 다른 교회를 섬기도록 명령을 받은 사명자로서 잃은 양을 찾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천국시민 되기를 소원합니다.
5.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고 생명을 잉태하는 사명자로서 복음화 된 통일조국, 비전2020운동, 천국일꾼양성, 아가페타운 건설이 하나님 섭리 중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6교구) 이영희 권사 (14교구) 김재중 집사
- <9독> (5교구) 이윤영 권사 (12교구) 김경칠 장로
- <5독> (2교구) 윤만현 집사
- <3독> (13교구) 이성자 (14교구) 김종자 권사
- <2독> (9교구) 조명녀 권사
- <1독> (1교구) 장양일 집사 (5교구) 박창희 권사 김혜연 집사 (10교구) 이완형 장로 (13교구) 엄정순 권사 김보경 집사 김현주 집사

## 순례자 촉탁기자 오리엔테이션

오늘 오후 3시30분 - 웨스트민스터 홀

각 부서 촉탁기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3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순례자의 편집방향과 임무 등을 받아 기자로서 순례자 편집에 참여하는 방법과 원고작성 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배우게 된다. 임명된 이들은 빠짐없이 참여하여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지도록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은실 이혜선 오주명 이화용 박민숙 한상욱  
한상혁 김필구 김성국 황성일 신혜영 조민희  
김민철 박우주 이조은 박은영 은기장 김광욱  
이동권 이양철 이태주 김원웅 최형열 한상준  
육희숙 송인권 서춘식 최양진 전정숙 채경희  
최임수 정치은 홍 석 홍 33명

#### 천국시민양성- 다락방 모임

## 다락방 모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락방 모임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십니다. 다락방을 통하여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우리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초조직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서울 교회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첫째,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찬임을 증명해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35:14)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서로 관계성을 맺고 있는 다락방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합니다.

둘째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신앙은 홀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2008년 16차 캠프세미나에 참가한 프랑스목회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 모임

어 함께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락방은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셋째,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자나 호랑이의 집중 공격대상은 무리에서 이탈

된 어린 것이나 허약한 동물들입니다. 대열에서 이탈되면 힘이 없습니다. 사탄은 대열에서 떨어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락방 안에서 함께 지체로 있을 때 이 세력으로부터 서로 세워주고 붙잡아 줌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인 무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락방 모임에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나눔과 교제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편집국)

## 2008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금주마감 - 접수는 사무국으로 -

2008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접수가 금주 중 마감된다. 지난 9월8일(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은 현재 많은 성도들의 참여 속에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금주까지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받고 있다. 모든 성도들은 한 과목 이상 수강을 하여 본인의 신앙성장과 여가 활용, 전도의 장으로 삼기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하고 있다.

## 1부 예배 오르가니스트 교체



우리 교회는 1부 오르가니스트로 수고하던 박준호 선생이 유학을 떠나 후임으로 강민정 선생을 임명하였다. 강 선생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교회 1부 오르가니스트로 섬기다가 지방으로 이사한 후 다시 상경케 되었다.



# 목회자 신학세미나 17년의 발자취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먼저 강단이 새로워져야 하며, 강단이 새로워지려면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성장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은 전국 목회자들의 갈급한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해마다 열어오고 있다. 교회 창립 직후인 지난 1992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봄, 가을 2학기씩 빠짐없이 진행해 온 목회자세미나는 이번 가을 학기로 제 34학기를 맞고 있다.

이종윤 목사의 깊이 있는 성경 강해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품격 강의로 이뤄진 10주간의 세미나는 Text와 Context, 즉 복음과 상황 두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갈파케 함으로써 목회자들로 하여금 학문적이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신학 교육을 접하게 하여왔다.

그동안 다루은 주요 주제를 보면,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교회갱신과 목회(92년)’, ‘복음과 상황(97년)’, ‘새 시대의 섬김 목회 모델(99년)’, ‘정보화시대의 교육목회와 교회성장(2000년)’, ‘21세기 교회와 전도의 새 패러다임(01년)’, ‘교회행정과 예식(05년)’,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생명사상(06년)’ 등이 있었고, 특히 지난 2002년과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그들의 신앙관과 국가운영에 대한 비전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서울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현 시대를 통찰하는 다양한 사회적, 국가적 이

“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먼저 강단이 새로워져야 하며, 강단이 새로워지려면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성장이 필요하다

”

슈를 선점하는 대표적 세미나로 발돋움했다. 이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참여하기 위해 전국 각지



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월요일마다 서울교회로 모여들었다. 매 학기 연인원 3천명에 이르는 목회자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17년간 세미나 참가 연인원은 이미 5만 명을 훌쩍 넘겼다. 목회자들 가운데는 장로교단 소속 목회자는 물론, 감리교와 침례교 등 모든 교단을 망라하고 있고, 10년 동안 빠짐없이 계속 참석한 목회자도 증

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1년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20학기의 세미나를 모두 참석한 20명의 목회자에게 10Years Round Table Members로 인증한 이래, 개근 목회자들의 숫자는 매년 10여 명씩 늘고 있다.

우리 교회의 선도적인 목회자 세미나 운영의 또 다른 요인은 목회자들을 정성으로 대접해온 전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과 기도였다. 매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수백 명의 목회자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권사님들이 손수 만든 김밥은 “인기 만점 김밥”으로, 10여년전 한동안 참석 목회자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었다. 이밖에도 등록과 수강, 서적 판매와 차량 안내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들의 열렬한 영접으로 목회자세미나는 해를 거듭할수록 명성이 자자해지고 있다.

교회는 현재 17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목회자 신학 세미나의 주제 강연들을 하나로 묶어 <목회자 신학 세미나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현재 ‘제7권’까지 발간됐으며, 지속적인 출판물을 준비하고 있다.

은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 속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학문적 지고성과 영적성숙으로 이끌고 있는 서울교회 목회자세미나는 앞으로도 교회와 시대를 이끄는 영적 싱크탱크로서, 명실상부하게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모범적 세미나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 김민철  
사진 : 정동호(편집국)



### 정수길 목사(교구위원회 지도)

9월을 맞아 모든 다락방이 연합으로 혹은 각 다락방 별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구 담당 목사들도 가을에 모이는 다락방을 점검하고 함께 하기 위해 ‘가을 일제 심방’을 시작합니다.

이번 일제심방을 시작하며 심방을 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준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순례자에 도움이 될 글을 게재 합니다.

심방의 목적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심방은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신앙의 성장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그리고 새해 일꾼 발걸음 위해 실시합니다.

심방을 준비하며 유의 할 사항은 첫 번째로 심방

받는 가정에서는 먼저 가정을 잘 정리하여 조용히 심방 받을 준비를 합니다.(전화선 차단 등)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심방을 받습니다. 심방 때에는 깨끗한 예배상과 냉수 한 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심방 받는 가정 식구들은 목사님 오른쪽에 앉습니다.

심방에 함께 참여하는 교구일꾼들은 심방을 받는 가정에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예배와 상담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심방 중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심방에 맞는 옷차림을 준비하고 심방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쪼록 심방 받는 모든 교구 다락방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캄보디아 군선교 사역

# Killing Field를 Living Field로 !!

## 이갑진 장로 (12교구)

Killing Field를 Living Field로 !!

서울교회가 파송하여 캄보디아의 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재울 선교사님의 선교구호다. 우리는 이 꿈을 같이 하며 지난 4년 간 함께 캄보디아 군 부대의 문을 두드렸고, 두드리는 부대마다 열리는 은혜를 주셨다.

2008년의 여름사역은 캄보디아 기갑사령부, 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포병사령부와 상이용사촌 등 5개 부대를 대상으로 금년 6.23일부터 8.15일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온 9개의 교회 및 선교기관들이 각각 다른 계획으로 참여하여, 영어캠프, 컴퓨터 캠프, 어린이 캠프, 의료/이, 미용봉사 등을 실시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하셨다. 본인은 8.4-15일까지의 사역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캠프 기간 중 특전여단에 선교목적으로 축구 팀을 창단하고, 수방사 장교들에게는 군윤리 리더십을 교육하였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 속에서 복음전도의 마당이 열려진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어캠프 3개 부대 320여명, 컴퓨터캠프 2개 부대 60여명, 어린이캠프 5개 부대 750여명, 리더십교육 1개 부대 110여명, 의료진료 5개 부대 1,700여명, 이미용 봉사 450여명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린다.

이 선교사 내외분의 사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상이용사촌 어린이들이 "할렐루야" 하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 캠프가 없는 토요일 하루 잠시 짬을 내어 자동차로 4시간을 달려 타이-캄보디아 국경의 바탐방 지역을 방문, 복음의 동역자들이 된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1일 제자 훈련을 하였다. 2008년의 사역에서 33명의 장교와 43명의 어린이가 세례를 받았고, 많은 장교들과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난생 처음 크메르어 성경을 선물로 받고 기뻐하는 캄보디아 군인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까지 이 사역이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군대를 복음화 하여 세계복음화의 꿈을 실현하려는 이 원대한 사역에 우리 서울교회가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캄보디아는 물론, 비전 2020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 복음화의 선교사역을 위한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소프라노 서할란 선생의 찬양으로 드린다.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를 졸업하고, 스위스 제네바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서 선생은 플라투라 소프라노(기교적이고 화려한 고음 소프라노)로 58회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였으며 국내외에서 초청을 받아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숙명여대에 출강하고 있다.

오늘 저녁은 하나님의 은혜 외 2곡으로 찬양드리며 반주는 유미영 선생이 수고한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93회 총회에 오정수 장로와 함께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참여한다.

■ 사임 : 그 동안 동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던 홍의만 윤해경 선교사와 북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을 펴던 문형숙 선교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였다.

■ 승진 : 성기호 성도(11교구) 주택관리공단(대한주택공사 자회사) 신임 사장 선임

■ 개인전 : 김준자 집사(1교구) 9/18(목)~9/24(수)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3층)

■ 특녀 : (6교구) 설치환 박정은 성도 가정 (14교구) 박동률 성도, 이애리자 집사 가정 (14교구) 손동혁, 최경선 성도 가정

■ 주간식당봉사 : 빌립선교회 (9.21) 안드레선교회(9.28)

■ 금주의 식사 : 이지영 성도 (어머니 강정옥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전도폭발훈련 1기 수료식

전도폭발훈련 제 1기 수료식이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진행된다.

제 1기는 이미 전도학교를 수료하고, 축조전도에 많은 경험을 가진 전도대원들을 선발하여, 국제본부의 표준 훈련 기간인 13주의 두 배에 달하는 26주에 걸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전도훈련 훈련자(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수료식을 갖게 되었다. 한편 제 2기 훈련은 1기 훈련 수료자 중 8명이 리더가

되어, 16명의 훈련생과 조를 이루어 13주간 진행되며, 지난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오는 9월 23일에 시작되어 13주간 진행된다. 제 3기에는 24개조 72명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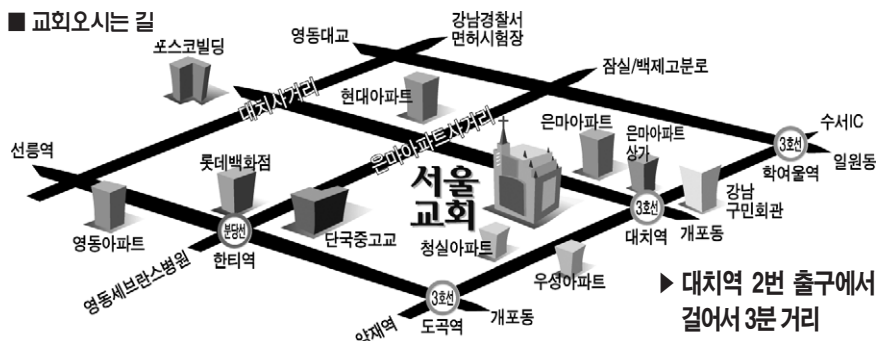
홍성주 광미숙 김규희 김찬진 박길희 박이선 박천희 위성남 윤계진 윤숙지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경로대학 등 각종 열린프로그램들 열매가 풍성하도록
2.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다락방 모임에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3. 2008 사명자대회 은혜 받고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4.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